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은 '창작·소통의 집'

군, 입주 작가들과 상생 협업 소식지 발간·북 콘서트 등 지역민 교류 프로그램 다채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이 작가 레지던스 사업을 통해 한국 문학창작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9년부터 문인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는 작가 레지던스 사업을 펴고 있다.

황지우 시인을 필두로 박병두, 정택진, 이은유, 이지담, 채길순, 이정모, 이원화, 송기원 등 국내 유수의 문인이 전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집필에 집중하며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백련재 문학의 집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집필실 제공을 넘어 작가들과 상생하는 협업 방식에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작가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연 4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은 지난 2019년부터 문인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는 작가 레지던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학의 집에서 열린 송기원 소설가와와의 만남 자리. <해남군 제공>

회 소식지를 발간해 전국 문학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문학의 집에 입주해 집필 활동했던 입주작가들의 성과와 초대 시·초대 산문 등으로 꾸며진 소식지는

명품 문학잡지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들로 발간 때마다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올해부터는 입주작가의 집필의도, 작품세계, 해남의 풍광 등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공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그동안 3기 입주작가인 김영래 소설가, 이경철 시인, 운순례 소설가의 콘텐츠가 제작됐다.

문인들의 예술적 성과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로 함께 나누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8월에는 입주작가 북 콘서트로 7년 만에 장편소설을 발간한 송기원 작가와의 만남이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반기에도 입주작가와 지역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명령관 해남군은 "백련재 문학의 집과 땅끝순례문학관은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찾아오면서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이라 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낙지 명성 잇는다 군, 목장 조성 등 자원회복 나서

무안군이 무안 낙지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낙지목장을 조성하고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등 자원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해제면 도리포·용유 연안에 어미낙지 3700마리에 이어 21일 청계면 구로연안에 어미낙지 18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군은 방류를 위해 암·수낙지를 매입 후 전남도 자원조성연구소에서 3~4일간 교접했다.

낙지는 금어기(21일~7월 20일) 동안 낙지목장에서 산란·성장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무안군은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10곳 50ha의 낙지목장을 조성했다.

올해 낙지목장 3곳 9ha를 추가 설치한다.

김산 무안군은 "낙지목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올해부터 5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지 산란식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안 낙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청산도 하면 노란색? 지금은 보랏빛!



완도 청산도에 보랏빛의 코끼리마늘 꽃이 피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완도군 제공>

코끼리마늘꽃 만개...군, 해양치유 기능성자원 육성 마늘보다 7~10배 크고 효능 탁월...식품 개발 박차

아시아 최초의 솔로스티인 완도군 청산도가 보랏빛의 코끼리마늘 꽃으로 물들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코끼리마늘은 우리나라 토종 마늘로 완도군에서는 해양치유 기능성자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청산도 서편재 촬영지와 부흥리, 당락리, 읍리, 도청리 등 2만9700㎡(약 9000평)에 코끼리마늘 꽃이 만개했다.

코끼리마늘은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커다란 구

근 작물로 양파와 비슷한 맛이 나며, 일반 마늘보다 7~10배 이상 크기가 커 '짐보, 대왕, 왕 마늘'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마늘은 한 알의 무게가 5~8g 정도지만 코끼리마늘은 한 알 무게가 30~60g에 이른다.

청산도에서 재배하는 토종 코끼리마늘은 기존 마늘 재배법과 다르게 마늘종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격자무늬로 남기고 제거, 커다란 코끼리마늘의 보랏색 꽃이 불거리를 제공해 경관작물로 부상하고 있다.

코끼리마늘은 효능도 뛰어나다. 지양 강장, 근육 증강 및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스크르딘(scordinin)의 함량이 일반 마늘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알리신 함량 또한 높아 살균 및 항균 작용은 물론 혈액 순환, 소화 작용, 당뇨병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에서는 마늘 맛이 나는 보라색 꽃과 마늘 중, 마늘과 양파의 중간 맛이 나는 중구 등을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기능성 영양 식품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끼리마늘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불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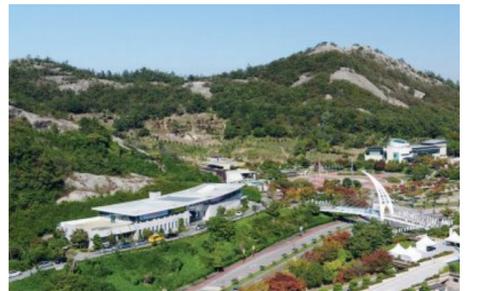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갯바위 인근에 '도심 정원' 조성

목포 지역의 명물인 갯바위(천연기념물 제500호) 일대에 도심속 정원이 조성된다.

목포시는 최근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입암산 일원(사진) 29만㎡에 '갯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비 40억, 도비 4억, 시비 36억 등 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목포시는 갯바위 문화타운과 평화광장 등 관광명소와 연계해 도심형 지방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문화와 예술, 푸른 산과 바다,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푸른 물결의 목포 갯바위정원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의 근현대 역사와 아름다운 목포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6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정원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암산 도심정원은 목포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심 정원이 목포의 랜드마크에서 나아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진도 수품항 정비...2026년까지 320억 투입

진도군 의신면 국가어항인 수품항이 노후 어항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지역경제 중심 어항으로 거듭난다.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품항은 기본시설 완공(2001년) 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어업활동의 변화, 어항 이용객의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시급했다.

오는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인 수품항 정비 공사에는 320여억원을 투입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외곽시

설(방파제 등)과 어업인 물품 위판 편의를 위한 집안시설(물양장 등)을 신설해 물품 위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수품항의 부족한 집안 시설과 육상기능시설 부지 조성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물품 위판 특화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